

NOROO

NOROO

2013 . Summer

NOROO





Special Theme

- 06

Backstory

지구를 지지하는 생명의 색, 초록
- 08

Color & Culture

오묘하구나, 綠綠
- 12

Interview

도시와 초록 사이 홍대텃밭다리
홍대텃밭다리 멘토 팀을 만나다

Culture Gallery

- 16

the Library

서늘한 서고 사이로 여름이 지나간다
- 18

the Bowl

뜨겁게 혹은 차갑게, 면 VS 탕
- 20

the Water Park

온몸에 꽃히는 물살을 즐겨라
- 22

Inspiration from People

손잡아 드릴게요, 같이 해요, DIY
㈜손잡이닷컴

NOROO People

- 26

Tea Time

맛있게, 건강하게 밥상을 드립니다
이경선 영양사와 조리원
- 30

High Five I

NOROO의 이름, 세계 곳곳에 심다
㈜노루비케미칼 해외영업팀
- 34

High Five II

하늘 아래 아름다운 천안의 아파트 채도장
㈜노루페인트 천안영업소 이용진, 박상은 주임
- 38

Family Trip

둘에서 넷으로, 서해안의 추억
㈜노루오토코팅 김완기 과장 가족
- 42

Special Store

컬러풀 & 원더풀, 양양 두리상사
- 46

News Briefing
- 50

1 minute Guide

선크림, 이렇게 바르세요
- 51

Thank you, NOROO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노루홀딩스 인사총무팀 장원석 대리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36-1 Capital Tower 10층 T:02-2191-7716

㈜노루페인트 마케팅전략팀 지남철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T:031-467-6128

㈜아이피케이 총무팀 송수경 주임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1422-8 국민연금 부산회관 17층 T:051-580-8363

㈜노루오토코팅 전략기획팀 백현정 대리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 760-2 T:031-8059-9517

㈜노루케미칼 지원팀 이경민 주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682-5 T:031-599-7273

㈜노루비케미칼 경영지원팀 이승아 사원
충청남도 천안시 백석동 527-6 T:041-620-6200

㈜노루코일코팅 지원팀 박서진 대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T:031-467-6486

㈜노루로지넷 총괄지원팀 전희경 과장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T:031-467-6363

㈜노루알앤씨 기획팀 박은주 주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615 T:031-599-7319

칼라메이트㈜ 업무총괄팀 전지의 사원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15-9 T:031-467-6379

Green

SPECIAL THEME

살아
있다,

생생한 초록

먼지 폭풍과 쓰레기로 뒤덮여 모두가 떠난 지구를 홀로 청소하던 로봇 WALL-E가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우주선 속에서 살던 인간들을 지구로 돌아오게 한 그것은, 초록 잎사귀의 식물이었다. 영화 WALL-E는 700년 후의 지구를 말하지만 현재의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다. 회색 아스팔트의 도시 속에서 초록은 모든 인공의 반대이며 자연이고, 생명의 근원이다. 동시에 정제되지 않은 역동과 제어할 수 없는 자연의 힘을 내포하는 것도 초록이다. 이렇듯 자연으로부터의 기쁨과 불안을 함께 지니고 지구가 살아 있음을 알리는 색, 생생한 초록이다.

지구를 지지하는 생명의 색, 초록

녹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먼저
녹색의 범주가 굉장히 넓다는 것부터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치 한 나무에 달린 수많은 이파리처럼
투명함이 느껴지는 신록에서부터
어둡고 습한 녹음의 녹색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앞은 하나의 뿌리에서 나오듯
이러한 녹색이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상징은
'생명'이다.

생명의 녹색

벌이 사라지면 4년 안에 지구가 멸망한다고 아인슈타인이
그랬던가, 문제는 벌에서 시작되어 스스로 수분하지 못하
는 식물로 귀결된다. 먹이사슬 속의 1단계에 위치한 식물
이 사라지면 생태계 피라미드가 와해되어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사라지는 것은 끔찍하게도 당연하다. 거대한 공룡
들도 외부적 요인으로 식물의 생장이 멈춰 굶어 죽었다는
설이 유력하지 않은가.
이처럼 생명의 근원인 녹색이 그 본래의 뜻으로 사용되는
주요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녹색이 거의 없는 문명화된 사
회다. 사막에서 초록 숲이 더 귀하게 여겨지듯, 초록을 살
의 근원으로 연결 짓고 갈구하는 이들은 문명화된 도시인
들이다. 산업화의 폐해를 자연 파괴로 겪은 20세기 후반
이래, 녹색은 정치와 경제, 사회 전반에서 녹색성장, 녹
색관광, 녹색도시, 녹색당, 그린피스 등 다양한 이름으로
쓰이며 자연을 보존 및 보전하여 지구의 생명을 연장하고
자 하는 현 문명의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 속에서 우리는 자연을 인간의 의지 아
래 좌지우지되는 수동적인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나 재
고해야 할 것이다. 자연은 예측불허의 역동이며 그 녹색
에는 새싹처럼 어린 면이 있는가 하면 미지의 바닷속처럼
깊은 녹색, 태풍에 쓰러져 가옥을 덮치는 거목의 짙은 어

두움도 있다. 따라서 통제의 기술이 미비하였던 과거, 광
폭한 자연 현상 앞에서 신의 자비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옛 서구인들은 녹색을 불길한 것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
것은 인간의 몸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비인간적인 색, 철
저한 외부의 색이었기 때문이다. 이에 유럽의 악령들은 대
개 녹색이거나 검정색이다.
기술이 발전한 현재도 천재지변에 대한 완벽한 대책은 없
다. 지진과 해일이 원자력발전소를 삼키고, 가옥과 빌딩
을 휩쓰는 장면을 우리는 생생히 지켜본 바 있다. 이러한
녹색의 힘을 기술로 억제하고 문명화된 프레임 안에 갇힌
여린 초록만을 바라는 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오만함은 아
닐까?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라는 동등한 입장에 서서 진
정으로 자연과 공생하기 위해서는 초록의 다양한 변주를
모두 긍정하며 그 싱그러움을 찬미하고, 미지의 위력 앞
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안정의 녹색

고대 로마의 작가 플리니우스는 “녹색은 눈을 기쁘게 하
며 피곤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그의 말은 현
대의 과학으로도 뒷받침된다. 녹색은 가시광선의 중간 파
장에 해당하여 이보다 짧아지면 청색으로, 길어지면 적색
으로 변하는데 가장 균형 잡힌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눈의

피로를 치유하고 안정감을 준다는 것이다. 오수연 저자의
『색의 유혹-색채심리와 컬러 마케팅』에 따르면 상징학에
서도 녹색은 중립, 평화, 안전을 의미하여 안전색채에서
비상구와 구호소, 대피장소와 대피방향 등을 지시하는 데
쓰이고, 또한 시야각을 가장 좁게 차지하여 시야의 중심
에 있지 않으면 잘 감지가 되지 않기에 시야 주변의 녹색
은 눈을 자극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래서일까, 카드 테이
블과 칠판 등 눈에 띄지 않는 배경이 필요한 곳에는 어두
운 녹색이 자주 쓰인다. 명절이면 펼쳐지는 고스톱용 담
요 역시 우연의 일치인지 암녹색이다.
그러한 녹색의 특징에 대해 추상화가인 칸딘스키와 몬드
리안은 마음을 안정시키지만 지루하다고 비하하곤 했다.
특히 뉴욕과 같은 도시에 열광하였던 몬드리안의 차가운
추상에서는 초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반면 근대화화의 아
버지라 불리는 세잔은 산이 뿜어내는 초록의 생명력에 사
로잡혀 〈생 빅투아르 산〉 시리즈에서 시원한 초록의 냄새
를 불러넣고자 했다.
이렇듯 자연의 양면성을 지닌 색, 자연처럼 광활하여 어떤
색이 들어가도 자신의 색으로 폭넓게 받아들이는 녹색은
오늘날 시민의 색으로 대표되며 마치 공기처럼 우리 주변
에 스며들어 있다.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자. 인공적인
녹색 외에도 창 밖의 신록이 싱그러운 지금이다.



오묘하구나,
록

녹색은 중립을 의미한다지만
그 안에서 끊임없는
변화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청소년기의 파릇함이
아이에서 어른으로 넘어가는
크나큰 탈바꿈과 공존하듯 말이죠.

‘자라다’는 뜻의 ‘Grow’와
‘Green’의 비슷한 어감에서 느껴지듯이,
녹색은 성장을 향한
싱그러운 생명력으로,
어떨 때는 징그러울 만큼
강렬한 생존 본능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는 흔히
전자의 매력만을 취하곤 하죠.
후자의 불편함은
SF 영화 속에 몰아두고 말입니다.

01
.



에메랄드 그린

팬톤 사는 2013년 ‘올해의 색’으로 이 색(17-5641 Emerald)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2012년 〈2013 NOROO 컬러 트렌드 쇼〉에 초청되었던 팬톤의 색채연구소장 리트리스 아이즈먼은 “그린은 자연에서 가장 풍부한 색채이며, 오늘날 같이 복잡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활과 화춘을 가져다주는 상징적 컬러이다.”라고 말했답니다. 아무래도 힐링이 대세인 요즘, 에메랄드 그린의 효과가 곳곳에 필요한 모양입니다. 5월의 탄생석인 맑은 녹색의 귀한 보석, 에메랄드는 바라보고 있으면 눈의 피로를 가시게 한다고 하여 예로부터 의학적, 장식적 목적으로 사용되었지요.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의 에메랄드 그린으로 벽을 칠하면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바라봐야 하는 눈에 안식처가 되어 주지 않을까요?

02
.



크립토나이트 VS 슈퍼맨

SF 영화에서 녹색은 악당의 색으로 자주 사용됩니다. 배트맨을 괴롭히는 조커의 머리카락 색, 스파이더맨의 상대인 리저드, 그리고 슬픈 히어로 헐크 등이 있지요. 참, 유쾌한 똥보 괴물 슈렉도 빼놓을 수 없겠군요. 그리고 크립토나이트도요. 지구를 거꾸로 돌릴 만큼 빠르고, 추락하는 비행기도 한 손으로 받아낼 만큼 힘센 우리의 슈퍼맨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 녹색 광물입니다. 크립토나이트에 둘러싸여 탈진한 채 악당들에게 두들겨 맞는 슈퍼맨을 가슴 아프게 응원했던 기억, 다들 있으실 텐데요. 2010년에 크립토나이트와 비슷한 성분의 광물이 세르비아에서 발견되어 재미난 이슈가 되었지요. 하지만 진짜 크립토나이트는 반지 형태로 배트맨의 유틸리티 벨트 안에 들어있다는 것, 아시나요? 슈퍼맨이 절친인 배트맨에게 맡겨놨다는군요!

03

.



이슬람의 신성한 초록

이슬람 문화권에서 녹색은 무엇보다 중요한 색입니다. 중동과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 사막지대를 주 배경으로 한 탓에 푸르른 나무와 오아시스에 대한 염원이 발현된 것이겠지요. 이슬람의 예언자 마호메트는 녹색 외투에 녹색 터번을 두른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가 메카를 정복한 전쟁에 가지고 나간 깃발도 녹색이었습니다. 리비아, 사우디아라비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등의 국기에서도 녹색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지요. 신성한 장례식에서도 녹색 차양을 이용하고, 모스크 역시 녹색 지붕과 녹색 타일로 장식하길 즐기요. 독재자도 녹색 선호를 이용합니다. 쿠데타를 통한 세계 최장기(42년) 집권 후 비참한 최후를 맞은 리비아의 카다피가 쓴 정치서도 『녹색서The Green Book』(1976)였답니다.

04

.



영원한 아이, 피터팬

1902년 영국의 소설가이자 극작가인 제임스 메튜 배리의 성인소설인 『작은 하얀 새』의 일부 내용이었던 피터 팬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아동극으로 만들어졌다가 동화로 옮겨져 『피터팬과 웬디』라는 이름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은 초록 모자와 초록 옷을 입고 장난 가득한 웃음으로 하늘을 날며 함께 살아갈 순수한 아이들을 찾아다니죠. 그의 초록 패션은 언제나 푸릇푸릇한 성장기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기 싫은 ‘어른아이’ 성인의 심리적 불안을 피터팬 증후군이라 부르는데요, 매력적인 피터팬의 제안을 거절하고 끝내 현실로 돌아온 웬디처럼 네버랜드는 마음 속에 품고 일년에 한 번씩만 들려야 늙름한 어른이 될 수 있겠지요?

05

.



초록 물결의 성 패트릭 데이

매년 3월 17일이 되면 미국 시카고를 가로지르는 강은 초록색으로 물듭니다. 아일랜드에 처음 그리스도교를 전파한 인물이자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인 성 패트릭을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기 때문이죠. 아일랜드의 명절이지만 아일랜드계 이주인들이 많이 사는 영국, 캐나다, 미국 등에서도 이러한 대규모 축제가 열리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곳곳에서 초록색 옷과 가발, 풍선 및 아이리시 맥주가 곁들여진 퍼레이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성 패트릭 데이 특수를 위해 초록색으로 꾸민 한정 상품들도 출시하곤 하는데요, 가장 인기 있는 것은 초록색 아이싱으로 꾸민 토끼풀 쿠키랍니다. 글을 쓰던 시골 사람들에게 성 패트릭이 앞이 세 개인 토끼풀을 이용해 기독교의 삼위일체를 설명했기 때문이지요.

06

.



새콤달콤 풋사과

더위에 지친 입맛을 자극하는 새콤달콤한 사과, 아오리는 그 싱그러운 색에서부터 시원한 청량감을 줍니다. 아오리 사과는 본래 쓰가루라는 공식 품종명을 갖고 있습니다. 쓰가루는 본래 8월 말이면 붉게 익어 제 맛을 내는 사과랍니다. 그러나 빨리 사과를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조급함에 아오리, 즉 푸른 사과(あおい푸른 + リンゴ사과)라는 일본식 이름을 달고 나서게 된 것이지요. 미리 수확하면 익기 전에 가지에서 열매가 떨어지곤 하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도 있고 말이지요. 그러니 아오리 사과는 흔한 우리말 ‘풋사과’로 바꿔 불러도 무방할 것입니다. 덜 익었다 해도 그 나름의 맛이 분명한 풋사과, 여름에 즐길 수 있는 별미 과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먹지는 마세요. 배가 아플 수도 있답니다.



도시와 초록 사이 홍대텃밭다리

홍대텃밭다리 멘토 팀을 만나다

옥상 텃밭, 도시의 오아시스

홍대입구역의 대로변엔 강남역 못지 않게 고층건물들이 도열해 있다. 그러나 바로 그 뒤, 가톨릭청년회관의 6층짜리 단정한 건물 옥상의 문을 열면 눈을 의심할 초록의 향연이 펼쳐진다. 콩 줄기가 지지대를 감고 올라가고, 호박과 수세미가 주렁주렁 달려 있으며 난간의 파이프에서는 딸기가 익어간다. 보라색 가지와 빨갛고 노란 토마토, 잘생긴 오이에 고추, 상추와 라벤더, 민트까지 없는 게 없다. 이곳은 도시 속 농업 공간, 홍대텃밭다리다.

“이곳은 여성환경연대의 기획 아래 몇몇 기업이 후원하고 가톨릭청년회관이 옥상 공간을 기부하여 탄생하게 되었어요. 옥상 텃밭을 가꾸고 싶은 이들을 회원으로 받아 공간을 나누고 각자 경작하는데 저희는 멘토로 활동을 독려하고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죠.” 홍대텃밭다리의 멘토 팀인 박정자 씨와 김태균 씨는 바쁜 손길을 잠시 쉬며 설명에 시간을 내어 주었다. 홍대텃밭다리는 경작 외에도 경작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공연 등 즐거운 문화 활동을 펼친다. 그날은 마침 장마 중에 비가 그친 날을 틈타 빗물 저장통과 퇴비 통을 손보는 중이었다.

“옥상 텃밭은 노지보다 손이 많이 가요. 높은 곳에 있어서인지 해와 바람의 영향을 더 먼저 받아서 농작물의 성장이 빠르지만 흙도 쉬이 마르고 강렬한 햇살에 작물이 타는 것도 순식간이더라고요.” 그래서 회원들은 당번을 정해 물 주기에 열심이다. 그만큼 수도세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빗물 저장에 대해 고민 중이다. “농작물에 들어가는 물도 고민이지만, 농작물로부터 나오는 쓰레기도 해결해야 한답니다. 가지치기를 하거나 잡초를 뽑는 등 부산물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모아 퇴비로 만드는 것이 필수적이지요.” 설명을 잇는 동안에도 김태균, 박정자 씨의 손은 흙을 고르고, 마른 가지를 꺾어내는 등 바지런히 그러나 가지런히 움직였다. 그런 움직임들이 모여 아름다운 텃밭이 완성된 것이리라.





흔하나 귀한 초록

“옥상을 텃밭으로 이용하려면 방수 페인트를 세 겹은 해야 한다고 해요. 물과 늘 공존하고 씨앗이 건물의 틈새에서 싹을 틔울 수 있는 위험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공간이 생기는 기회는 귀하죠. 하지만 그 결과도 참 귀하답니다. 도시 속에서 생명의 성장을 느끼게 해 주니까요.” 김태균 씨는 주변 고층건물에 근무하는 분들이 텃밭다리에 와 휴식을 취한다고 했다.

“초록은, 관심인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죠. 관심을 가지면 어느 순간 보이기 시작하고요.” 김태균 씨는 초록을 유지하는 데에도 관심이 필요하다고 했다. 옥상 텃밭은 인위적 밭이기 때문에 내버려두면 금새 황폐해진다. “도시 생활에 바쁜 회원들이다 보니 지속적으로 텃밭을 가꾸는 게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런 노동을 통해서 농부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길 바라지요. 더 나아가 수확물로 수익을 내어 도시 전업농이 가능한 방법도 제시할 수 있었으면 하고요.”

생각의 갈래를 하나하나 짚어가는 김태균 씨의 느린 말투를 박정자 씨가 받아 말했다. “사람들은 초록에 대한 본능이 있는 듯해요. 전에 초등학교에서 텃밭 교실을 하면서 어린이와 농사가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꾸고 자라나며 행복해 하죠. 그러한 기쁨을 더 널리 알리고, 꾸준히 지속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얼마나 먼 거리를 날아왔을지 모를 노란 나비가 그들 사이를 팔랑팔랑 지나 호박꽃에 앉았다. 그 지친 날개의 휴식은 그야말로 꿀맛이리라. 생명이 모이는 곳, 도시 속에 이곳이 있어 참으 고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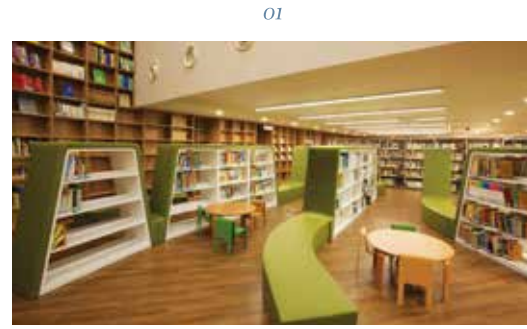


Culture
Gallery

사막이 아름다운 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라지요.
더운 여름도 휴가가 있기에
우리엔겐 아름다운 계절이 아닐까요.
시원한 휴가를 위한 명소와 특식,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봅니다.

서늘한 서고 사이로 여름이 지나간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이라 해도, 애정이 넘치는 가족이라 해도 더운 여름에 쾌적한 나들이를 완성하기란 쉽지 않다. 이럴 땐 기본으로 돌아가 보자. 저렴하고 시원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기본적인 아이템 중 하나가 '도서관'이다. 늘 가던 동네 도서관 외에 조금 더 먼 도서관, 독특한 도서관은 색다른 하루를 보내게 해 줄 것이다.



서울도서관

~ 서울을 즐기는 시원한 방법 ~

1926년 세워졌던 서울시청의 구청사가 2012년 가을, 서울도서관으로 다시 태어났다. 약 20여만 권의 장서와 디지털 자료실, 서울 자료실, 북 카페 등을 갖춘 서울도서관은 1926년 청사 건립 당시의 외벽과 홀, 중앙계단을 그대로 복원하여 근현대를 겪어낸 세월의 깊이도 함께 느낄 수 있다. 특히 원래의 목직화 나무 그대로인 정문은 도서관에 들어서는 현재를 과거와 교차하게 만드는 타임머신의 문. 개관한 지 1년이 채 안 되어서인지 서울도서관의 책들은 깨끗하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 읽는 즐거움이 더 크다. 대어는 서울시민에 국한되지만 열람은 누구나 가능하고, 갖가지 행사가 열리는 서울 시민청과도 연결되어 있어 근처 덕수궁 등과 함께 하루 나들이 코스로 제격이다.

03



한국영상도서관

~ 영화도 보고, OST도 듣고 ~

한국영상자료원이 운영하고 있는 영상도서관은 영화를 공부하는 학생뿐 아니라 영화를 좋아하는 일반인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영화 전문도서관이다. 도서관이라 하여 영화에 관한 책만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국내에 출시된 모든 영화 관련 DVD(블루레이 포함) 17,600여 점, VHS 4,800여 점, 도서 5,800여 권 등이 영상도서관에 모여 있는데 1인 감상석, 2인 감상석, 다인 감상석 등이 마련되어 있어 취향대로 즐길 수 있다. 한국 고전 영화와 독립영화 일부는 동영상으로 서비스되며, O.S.T 감상석에선 영화음악도 마음껏 들을 수 있다.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의 한국영상자료원 내에 위치해 있다.

02



한국만화도서관

~ 조용하고 재미난 휴식처 ~

더위도 아랑곳없이 천방지축인 아이들을 가만히 앉아있게 만드는 마법이 하나 있다. 그것은 만화책을 쥐여주는 것! 그러므로 이곳에 가면 어른, 아이 모두 조용한 휴식이 가능하다. 바로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박물관의 만화도서관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만화 전문자료실인 만화도서관은 국내와 해외만화 그리고 관련 논문까지 25만여 권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으며 애니메이션도 열람할 수 있다. 만화도서관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5천 원의 입장료가 있는 한국만화박물관도 재미있는 볼거리가 가득하다. 영상과 진동, 향기, 물, 바람 등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4D 상영관 및 만화 체험관은 만화책을 보고 나오는 가족들의 발걸을 자꾸 끌어당길 것이다. 만화책과 영상에 폭 빠지는 이곳, 한 번 가면 단골 코스가 되지 않을까?

04



LIBRARY1

~ 밤을 밝히는 초록 도서관 ~

거의 모든 것의 이웃(neighbor)처럼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려주는 네이버가 도서관을 만들었다. 성남시 분당의 NHN(네이버) 본사에 위치한 LIBRARY1은 'NHN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는 책을 모아 놓은 NHN의 서재로 다양한 나라의 장서와 간행물을 보유한 DESIGN&IT 전문 도서관'이라고 한다. 이 외에도 <지식인의 서재>라는 책 캠페인을 통해 가수 이적, 감독 박찬욱 등 명사들이 추천한 책들을 전시와 함께 구비하여 그들의 시선 속에서 책을 읽는 경험도 할 수 있다. 탁 트인 구조의 도서관과 단정하게 구비된 책상, 의자 등이 조용한 독서의 휴식, 그리고 사고를 깊게 해 준다. 평일에는 밤 10시까지 열려 있는 친절한 도서관이다.



보신탕, 삼계탕, 추어탕 ● 복날이 되면 삼계탕 집에 긴 줄이 선다. 이렇게까지 해서 먹어야 하나 싶다가도, 챙겨먹지 않으면 어딘가 아쉬운 것도 사실이다. 여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복날, 이열치열로 몸을 보하기 위한 식사에는 삼계탕 외에도 개장국인 보신탕, 추어탕 등이 있다. 개장국은 여러 문화적 논란으로 몸을 숨긴 형국이라 대신 삼계탕과 추어탕이 더 각광을 받고 있는데, 특히 삼계탕은 매운 맛이 없고 인삼이 들어 있어 외국인에게도 무리 없이 어필하고 있다. 추어탕은 개장국의 얼큰함과 영양성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품으로 원래는 찬 바람이 부는 초가을부터 맛이 난다 하였으나 지금은 양식으로 언제나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차별화된 보식, 황제탕, 불로탕 ● 부잣집의 보양식이었던 삼계탕이 대중화되면서, 고급 호텔에서는 보양식의 차별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랜드 하얏트 서울의 중식당에서는 중국 황실의 보양식으로 남자용인 단왕예, 여자용인 단귀비를 특별 제작된 전용그릇에 담아 낸다. 15만 원에 달하는 이 특식은 사전 예약을 해야 맛볼 수 있다고. 제주신라호텔의 더 파크뷰 디너 뷔페에 제공되는 한라산 불로탕은 제주의 대표 보물인 표고버섯, 전복, 흑돼지, 닭, 한우를 우려낸 국물 요리다. 임페리얼 팰리스 서울의 모듬버섯 백우렁농탕도 임금님의 수라상에 오를법한 보양식으로, 고기 국물처럼 뽀얀 우력 육수가 각종 버섯과 어우러져 고소하고 담백하단다. 가격은 12만 원부터라니, 보식(補食)이 보식(寶食)인 셈!



물냉, 비냉? 평양식과 함흥식 ● 평양냉면, 진주냉면, 물냉, 비냉, 함흥냉면 등 냉면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종류와 특징을 확실히 구분해 보자. 일단 평양냉면은 메밀가루와 녹말을 섞은 면을 육수와 동치미 국물로 만든 시원한 국물에 넣어 먹는 것이다. 막국수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른 점이 있다면 평양냉면의 면은 메밀의 껍데기를 제하여 색이 희뿌연데, 막국수는 껍데기째로 막 갈아내어 좀더 검다는 것과 주로 동치미나 김치 국물만 썼다는 것이 다를 것이다. 함흥냉면은 감자녹말로 면을 뽑는 것이 특징이다. 함흥냉면의 고향인 함경도 지방은 메밀이 귀한 대신 감자가 많았던 탓이다. 툭툭 끊기는 메밀 면과 달리 감자 면은 질기하다. 긴 설명을 정리하자면 흔히 우리가 물냉면이라 하는 것이 평양냉면, 국물이 없는 회냉면 혹은 회를 제해 비빔냉면이라 부르는 것이 함흥냉면에 속한다.

고명이 잔뜩, 독특한 냉면 ● 맛집 블로그에 심심찮게 등장하는 석음냉면은 물냉과 비냉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들을 위해 탄생한 듯싶다. 붉은 양념장이 섞인 육수에 해물 또는 쇠고기를 넣어 푸짐하게 즐길 수 있다. 육전을 썰어 올리는 진주냉면이나 중국식 냉면도 고명에 힘이 들어간다는 점에서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코 끝이 매운 겨자, 고소한 땅콩소스가 차가운 육수와 어우러진 중국식 냉면에도 다양한 해산물이 면 위에 올려진다. 중국집 메뉴판의 시원한 면식에는 냉짬뽕도 있다. 얼큰함과 시원함이 공존하는 묘한 카타르시스의 음식인 셈.



핫한 워터파크! 캐리비안베이

워터파크하면 캐리비안 베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수도권 경인 경기도 용인에 위치해 있는 최대 규모의 ‘핫한 워터파크’로 근육남, 늘씬녀들의 경연장이 되기도 하는 캐리비안 베이는 긴장감 넘치는 어트랙션들로 유명하다. 워터슬라이드로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360도 회전 구간이 있는 ‘아쿠아루프’가 대표적인데, 캡슐 형태의 승강대에 들어가면 카운트다운과 함께 바닥이 꺼지면서 맨몸으로 떨어져 체감속도 90km/h(실제속도 60km/h, 중력가속도도 2.5G)로 튀어나가는 엄청난 스릴을 준다. 이밖에 여럿이 튜브를 타고 속도를 즐길 수 있는 타워 래프트, 타워 부메랑고, 튜브 라이드 등도 인기 놀이기구다. 물놀이는 칼로리 소모가 높고, 맨발로 걷다 보면 피로도가 더 높아지므로 넓은 캐리비안 베이를 알차게 이용하려면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어트랙션을 선정하여 미리 코스를 짜 놓는 게 좋다.

온몸에 꽃히는
물살을 즐겨라

워터파크를 완성하는 것은 무엇일까? 시원한 풀장, 아찔한 워터 슬라이드, 전신을 강타하는 물 폭탄, 그리고 ‘소리’다. 풍덩, 침병, 싸아아, 철썹 등 물이 낼 수 있는 모든 소리와 함께 신나는 합성, 즐거운 웃음, 경쾌한 음악, 안전요원의 호루라기 소리까지 뒤섞인 워터파크의 소란은 귀를 통해 온몸을 진동시키고 짜릿함을 높인다. 놓칠 수 없는 여름의 어뮤즈먼트! 어떤 곳으로 가 볼까?



가족 중심 휴양지, 테딘 워터파크

2010년 천안에 오픈한 테딘 패밀리워터파크는 이름에서부터 가족 중심 휴양지를 내세웠다. 약 1만 평 규모의 중부권 최대 규모 테딘 패밀리워터파크는 10종이 넘는 슬라이드를 구비하고 로마, 스페인, 베니스 등 유럽의 유명 건축물과 유적지를 테마로 디자인되어 색다른 즐거움을 준다. 100m에 달하는 국내 최장의 튜브 옥토퍼스 레이스는 튜브를 타고 감감한 슬라이드 안에서 360도 회전하며 몸이 공중으로 뿜 날아오르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쓰나미 슬라이드는 거대한 해일을 타는 듯 아찔하다. 어린이들을 위한 바이킹 타위는 워터파크 중앙에 마련해 두어 접근이 편리하고, 황금탕과 체리탕, 홍삼탕 등 다양한 테마의 스파 시설은 구색용이 아닌 본격적 휴식 시설로 온 가족이 다 함께 이용하기 좋다.



몸 편히, 마음 편히 웅진플레이도시

모처럼 나들이를 계획했는데 비가 온다면? 반갑지 않은 장마철에도 즐길 수 있는 실내워터파크로 가까운 부천에 웅진플레이도시가 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워터파크 시설에 야외 워터파크와 스파 시설이 작년 여름 신설되었고 올해에는 어린이 전용 물놀이 공간인 ‘돌핀 키즈존’까지 추가 오픈되어 즐길거리가 더 늘었다. 블랙홀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스페이스볼’ 슬라이드 등 7가지의 슬라이드가 어른들에게 즐거움을 준다면, 키 작은 어린이들은 돌핀 키즈존에서 안전하게 놀며 물고기 캐릭터와 함께하는 어린이 전용공연도 즐길 수 있다. 야외 워터파크인 써니파크는 해가 지면 시원한 밤바람과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끽할 수 있어 스파로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이용객이 많다. 피약별 아래 넓은 곳을 돌아다니기 힘든 유아와 함께라면 웅진플레이도시가 모범 답안이 될 것이다.



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 원마운트 워터파크

7년간의 준비 끝에 올해 드디어 오픈한 경기도 일산의 원마운트 워터파크가 요즘 화제다. 도심형 최대 규모(국내 3위 규모)의 워터파크는 지상 40m 높이에서 즐기는 아찔한 슬라이드와 실내형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파도풀, 튜브를 타고 급류와 동굴을 통과하는 300m 길이의 유수풀, 원심력으로 순간 무중력 상태를 체험할 수 있는 ‘스카이 부메랑고’ 등의 어트랙션 등으로 실 톱 없는 레저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국내 최대 규모로 마련되었고 카니발과 서커스의 디자인 요소와 인터랙티브 시스템을 적용한 판타스틱플렉스는 화려한 음악 분수로 아이들의 환호성을 자아낸다. 실외 시설과 실내 시설, 스파 시설이 잘 짜여 있어 오락과 휴식을 겸하며 피로감 없이 즐길 수 있다.





대전에 위치한 (주)손잡이닷컴의 스튜디오 문을 열자 기분 좋은 소란이 와락, 달려든다. 세 남자가 카메라 앞에서 웃고 떠들며 NOROO의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를 소개하더니, 곧이어 모니터로 옮겨가 공짜로 받아온 경품을 경매에 붙여 어마어마한 적립금에 낙찰시켜 버린 후 크하하하~ 웃음으로 이 모든 생방송을 마무리한다. 보고 있자 하니, 혼이 쏙 빠져나가 저들에게 찍 달라붙는 느낌이다. 이들은 (주)손잡이닷컴의 3인방, 최감독, 조박사, 김피디다.



손잡아 드릴게요. 같이 해요, DIY

(주)손잡이닷컴

대한민국 DIY 역사서

연감생심 차고나 작업실은 꿈꾸기 힘든 도심 속 아파트 생활, 그리고 전세 등의 거주 문화 때문에 대한민국의 DIY 문화 확산은 힘들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똑같은 구조 속에서 생활하기에 자신만의 것을 갈구하는 마음은 더 크고, 내 집의 분위기를 만들려는 욕구는 더 강렬한가 보다. 좁은 베란다에서 톱질을 하고, 거실 한 켠에서 사포질을 해서라도 내 것을 만들어내는 열정 덕에 해외의 DIY'er(DIY를 하는 이)들에 비해 한국의 이들이 뛰어난 전문 기술을 갖추었다는 평을 받는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DIY용품 1 등 인터넷쇼핑몰 (주)손잡이닷컴(www.sonjabee.com)의 공도 뒷받침되어 있을 것이다.

“손잡이닷컴은 2002년 오픈했어요. IMF와 함께 건축시장 전체가 휘청일 때 평소 DIY에 관심이 많았던 사장님이 손잡이라는 아이템을 발견했죠. 주부들이 리폼이라는 작업을 통해 집을 예쁘고 쉽게 꾸밀 수 있는 틈새 시장이 앞으로 확대되리라 예측했는데, 그것이 적중했어요.” (주)손잡이닷컴의 인터넷 생방송, 〈목요

일의 신호위반〉에서 촬영과 편집을 맡고 있는 최감독, 최정무 기획팀장의 소개다.

(주)손잡이닷컴의 시작은 이름 그대로 손잡이 수납 중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지금은 목직하고 파워풀한 공구에서 가지각색 타일과 목재, 철물, 포인트가 되는 시트지와 스티커는 물론 페인트와 원단, 벽지까지 DIY에 필요한 모든 것이 빠짐없이 구비되어 있다. 여기에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은 중요 품목이 하나 더 있다. DIY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손짓, 그리고 손잡아 주는 격려다. 고객들과 실시간으로 웃고 떠들며 소통하는 인터넷 방송과 하루에도 수십 개씩 올라오는 질문에 일일이 답글을 달아 주는 QnA, 다양하게 마련된 커뮤니티 등 운영진의 정성에 고객들의 열정이 응하니, 리폼 후기를 올리는 우리집 데코 코너 등은 가히 대한민국 리폼 역사서라 할 만큼의 데이터가 쌓였다. 초보에서 마스터까지, ‘나도 해 보고 싶다’와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어요’란 마음을 주고받는 것이다.



손에 손잡고, 다리를 건너

“레디메이드(Ready-made)의 한계에서 자유로운 것이 DIY죠. 창작의 기쁨과 함께 내 목적에 100% 부합하는 슬모, 그리고 친환 경성 등 한 번 빠지면 그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손잡이 닷컴의 강좌 부문을 맡고 있는 김성기 계장, 김피디는 DIY의 장 점을 소개하면서 주 고객층인 주부들의 변화도 언급했다. “아마추 어에서 시작해서 전문가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고객들이 만든 것을 보고 계약을 맺어 상품화하는 경우도 많지요. 현재 약 10만 여 개에 이르는 아이템과 다양한 커뮤니티 채널의 탄생은 이 렇듯 고객들의 작품과 제안에서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주)손잡이닷컴을 상품과 고객, 고객과 고객 사이에 놓 인 다리라고 말한다. “레디메이드(Ready-made)와 DIY 사이 에는 작은 문턱이 있어요. 저희 커뮤니티를 통해 ‘두려워 말고 이 리 와 보라!’며 독려하죠. 상품은 그 다음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 이고요.” 반제품 개발을 맡고 있는 조박사, 조운재 대리의 말을 들으니 지난 <2013 NOROO Paint & Coatings Show>에

서 (주)손잡이닷컴과 함께 진행했던 DIY 강좌도 그 다리였다는 생 각이 든다. 행사장에서 붓을 잡았던 참가자들은 쉽게 문턱을 넘 었으리라.

마지막으로 그들은 한 번 더 손을 내민다. “공구 잘못 쓰시면 다칩니다. 필요한 것 있으시면 손잡이닷컴 열심히 보시고, 용기 내어 도전해 보세요. 저희가 손잡아 드릴게요!”



NOROO
People

그것 아세요?
양양에선 무지개 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공을 잡니다.
천안에서는 아파트가 아름답게 물들어가고요.
세계 곳곳에서는 NOROO 이름이 점점 더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의 수고 덕분입니다.
그 수고에 감사 드립니다.



맛있게, 건강하게 밥심을 드립니다

이경선 영양사와 조리원

밥을 크게 떠 입에 넣는다. 고추장 양념이 기름진 멸치 두 어 마리를 젓가락으로 집어 씹는다. 밥알의 달큰함에 매콤함이 어우러질 때, 오이를 크게 베어 문다. 아삭하게 부서지는 오이가 입안을 시원하게 한다. 아, 맛있다. 이 맛있는 시간이 있어 오늘 하루도 힘을 낸다. 맛과 영양으로 밥심을 키워주는 곳, NOROO 안양 본사 구내식당을 찾았다.

엄마가 정성껏 차린 밥상처럼

“구내식당 밥이 정말 맛있어요.” “엄마 밥상, 그중에서도 엄마가 맘먹고 힘주어 차린 밥상 같아요.” NOROO 안양 공장을 드나드는 외부인과 매일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NOROO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이들의 말을 전하자 “하하하, 정말요?”하고 시원하게 웃는 사람, 이경선 영양사다.

“이제 NOROO에서 3년 차인데, 시행착오도 몇 번 거쳤지요. 이제는 NOROO인들의 기호를 파악해서 그에 맞게 조절하고 있어요.” 이경선 영양사에 따르면 NOROO 사람들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기본적인 한식을 가장 선호한다고 한다. “하지만 5일 내내 한식만 드리면 지겨우실 수도 있으니,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가벼운 일품 요리를 내기도 해요.” 메뉴 이야기에 그녀의 눈이 반짝 빛난다. 하루 세 끼, 한 달의 메뉴를 짜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녀에게는 즐거운 일이다. “메뉴를 짜는 것은 기초공사이지요. 기초가 부실하면 맛있는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해도 조화가 안 되어 맛이 반감됩니다. 공을 많이 들여야 하는 업무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주방의 하루 일과가 궁금해졌다.



“출근하여 당일 조리될 식자재의 상태와 수량을 검수한 후 주방의 조리 작업을 감독하고 검식하죠. 조리 방법에 따라서 맛이 좌우되니까요. 배식 중엔 부족해지는 메뉴에 대한 대체 요리를 빠르게 준비합니다. 정리와 청소가 끝나면 2~3시에 조리원들과 늦은 점심을 먹으며 평가와 계획 등 회의를 하죠. 그 후 식자재 발주를 하고, 다음날 조리를 위한 준비 작업을 해 둡니다.”

이 일과 중 이경선 영양사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조리 시간이라고 한다. 조리원들의 작업을 감독하며 검식하고 맛있게 만들어내는 과정이다. 14년 차인 반장 박원춘 조리원은 이경선 영양사가 꼼꼼하게 체크하는 덕분에 힘들다고 농담을 건넨다. 주방에 웃음이 번지는 사이, 이경선 영양사는 반장님을 비롯한 여섯 명

의 조리원들이 식사 시간을 제외하면 잠깐 앉아 쉴 틈도 없이 일하신다고 전했다. 게다가 불 앞에 서는 탓에 여름이면 몸무게가 훌쩍 빠진다고.

“그토록 힘든 일이지만, NOROO라는 울타리 안에서 엄마의 마음으로 열심히 해 주신답니다. 조리 과정에 손이 더 많이 가는 건강 식단들도 기꺼이 해 주시지요.” 균형 있는 식단 그리고 하루 전부터 사골을 우려 설령탕을 끓이고 열무김치나 깻잎김치도 손수 담가 주는 조리원들 덕에 NOROO의 건강한 밥상이 완성되는 셈이다.



맛있게 드세요, 두 번 드세요!

최근 이경선 영양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건강한 식단이다. “바른 식습관을 위해 저염식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어요. 올해 들어 급격하게 변화를 줬다가 실패하여 지금은 염도를 절충한 상태죠. 앞으로는 맛도 고려해 긴 시간 동안 조금씩 염도를 낮추어갈 계획입니다.” 저염식단을 구성하면서 조미료 사용량도 1/3 수준으로 줄였다. “인공감미료에 길들여진 입맛을 되돌리기에는 오랜 기간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그 후에는 재료 본래의 맛을 제대로 음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식단 개선에 열중하는 이유는 구내식당이 가족의 밥상이기 때문이다. “영양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입맛에만 맞는 식사를 만들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밖에서 식사를 하시면 기호에 맞

게,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겠지요. 하지만 영양사가 준비한 한 끼와는 질적으로 차이가 날 것입니다. 제 음식에 자부심을 갖고 떳떳하기 위해선 우리 음식을 건강하게 만들어야지요.”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였다. “맛있게 드세요, 그리고 두 번 드세요!” 자율배식이니 먹을 만큼 가져가 다 비우면 또 덜어 먹자는 뜻이다. 충분한 양의 음식을 준비했음에도 잔반으로 많이 버려진 탓에 나중에 온 사람들이 못 먹으면 영양사와 조리원들은 가장 속상하다고 한다. 가장 기본 좋은 것은 잔반 없는 식판, 그리고 맛있게 먹었다는 말 한 마디다. 그 보람으로 오늘도 구내식당 주방은 바쁘게, 기쁘게 밥상을 차려낸다. NOROO인들 온 몸 가득 밥심을 실어주기 위해!

경제 위기 속에서 선전하는 이들의 소식은 귀를 쫑긋 세우게 한다. 그 소식에 NOROO의 이름이 실려 있으면 주목도가 더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 ㈜노루비케미칼의 행보는 그렇게 시선을 모은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파죽지세의 기세로 매출액을 높이며 터키, 러시아, 브라질 등 해외로의 행보를 넓히고 있는 ㈜노루비케미칼. 그 글로벌 마케팅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것이 ㈜노루비케미칼의 해외영업팀이다.

NOROO의 이름, 세계 곳곳에 심다

㈜노루비케미칼 해외영업팀



태동기에서 성장기로

“노루비케미칼은 플라스틱 도로, 특히 자동차용 플라스틱 도로를 개발, 생산, 판매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플라스틱용 도로 전문회사입니다. 현재 국내 시장점유율에서 2등과 10% 이상의 격차를 벌이며 1등의 자리를 지키고 있지요. 한국의 자동차 5대 메이커, 현대, 기아, 르노삼성, GM코리아, 쌍용 모두와 거래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외로 진출할 때에도 함께하여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중국, 인도, 체코에 이어 러시아와 터키, 브라질, 이란까지 직수출 거래선을 확대해 가고 있지요.” ㈜노루비케미칼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이섭 상무의 말에는 자부심과 에너지가 묻어났다. 회사의 설립연도에 입사한 이섭 상무는 ㈜노루비케미칼의 모든 역사를 함께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외 진출도 마찬가지였다.

“해외 영업을 시작한 것은 2005년도부터였습니다. 해외로 전략을 꺾하자 2백 몇 십 억 하던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어 381억이 되었고, 지금은 그 4배 이상의 전체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매출액은 올해 약 530억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해외 사업의 태동기라 할 수 있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노루비케미칼은 현대, 기아 자동차와 함께 진출하여 미국과 인도, 체코, 중국에 법인을 설립하고 1차 생산거점을 확보하며 성장의 토대를 튼튼히 하였다. 그리고 ‘제1 성장기’인 지금까지 생산의 현지화를 추진하고 현지 한국계 업체를 공략하며 흑자구조를 만들었다. 그리고 ‘제2 성장기’인 2016년까지 현지 로컬 고객으로 시장을 확대하고 점유율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노루비케미칼이 해외 영업에 힘을 쓰는 것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한국 자동차 기업의 생산량은 세계 5위로, 해외에서의 생산과 판매량이 국내를 추월해 가고 있어요. 국내에서 만들어내는 요소들을 거의 해외로 내보내니, 저희도 그에 맞추어 일을 해야 합니다. 국내, 해외 구별이 무의미하지요.” 손택 주임이 설명을 보태었다.



세계와
경쟁하는
(주)노루비케미칼의
기술력이
화살이라면
해외영업팀은
팽팽한
활이리라

공식적으로는 최석호 주임과 손택 주임, 이섭 상무까지 세 명이 해외영업팀이지만, 해외에 나가 있는 주재원 20명을 포함하여 130명 가량의 (주)노루비케미칼 전 임직원 모두가 해외영업팀원이나 다름없다는 말이다. “해외영업팀은 해외업무의 창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해외 수출은 저희를 통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막힘 없이 세계를 향해 있지요.” 이섭 상무의 역설(力說)이 방에 걸린 세계지도 곳곳에 마크된 (주)노루비케미칼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바라보게 한다.

기술적 전략과 함께하는 영업

(주)노루비케미칼의 높은 시장 점유율의 비결은 강한 기술적 전략에 있다. 시장 자체를 넓히는 것이다. “도장하지 않던 아이템을 도장하게끔 하거나 기존 도료에 고기능을 부여하여 신시장을 창출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플라스틱 위에 가죽 느낌을 주는 도료, 표면이 자체적으로 손상을 제어하여 복원되는 도료, 세균에 강한 항균성 도료의 개발 등으로 해외에 진출할 때에도 이러한 기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료 신기술 개발 능력은 Akzo, BASF 같은 글로벌 업체에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다고 자부합니다.” 최석호 주임의 말에서 도료의 힘을 무한대로 만드는 기술에 대한 자긍심이 비추어진다.

최석호 주임은 2010년 입사와 함께 미국으로의 첫 수출을 시작, 7억에서 올해 예상되는 70억까지 매출의 가파른 성장세를 지켜왔다. “3년 남짓한 짧은 시간이었지만 상무님의 특훈 덕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희에게 해외 업무 관련하여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답니다.” 손택 주임은 씩스러운 웃음 뒤로 자부심을 내비쳤다. 현대자동차의 생산 공장이 있는 터키에서의 제품 납품을 안정적으로 늘리기 위해 불철주야 관리 중인 그다.

“노루비케미칼이 글로벌 진출을 시작한 지 이제 9년, 자동차에 비유하자면 막 시동을 걸어 시속 30~40킬로미터 정도의 속도를 낸 상태지요. 이제 더 빠른 속도로, 더 넓은 시장에서 일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해외영업팀, 그리고 노루비케미칼의 직원들은 앞으로 회사를 몇 배나 더 성장시킬 수 있을 테지요. 기대가 큼니다.” 이섭 상무의 기대에 두 주임의 눈빛은 더욱 깊게 빛난다. 세계와 경쟁하는 (주)노루비케미칼의 기술력이 화살이라면 해외영업팀은 팽팽한 활이리라. 세계 시장을 과녁 삼아 시위를 당기는 (주)노루비케미칼의 해외영업팀을 통해, 그리고 모두의 힘이 모아져 NOROO의 이름은 세계 곳곳에 꽃힐 것이다.



왼쪽부터 이섭 상무, 손택 주임, 최석호 주임

하늘 아래 편안한 천안의 아파트에서는 요즘 산뜻한 컬러가 눈길을 끈다. 그 아름다운 변화를 이끈 이들은 (주)노루페인트 대전 지점 천안 영업소의 이용진 주임, 그리고 박상은 주임이다. 아파트 재도장이라는 시장 개척에 나선 1~2년 차 신입사원들의 분투기, 그들이 낳은 호뭇한 결과에서 NOROO인의 에너지가 전해진다.

하늘 아래 아름다운 천안의 아파트 재도장

(주)노루페인트 천안영업소 이용진, 박상은 주임

페인트계의 아이돌

천안 영업소에 도착한 것은 장마가 시작되려는 흐린 오후였다. 그러나 천안 영업소의 문을 여는 순간, 온몸을 누르던 습기가 사라졌다. 대신 보송보송 산뜻한 느낌을 전해 준 두 사람은 흰철한 키에 옻된 마스크를 지닌 이용진 주임과 박상은 주임이었다. 감히 ‘페인트계의 아이돌’이라 불려도 무방할 그들은 천안에서 아파트 재도장이라는 시장에 도전, 성공의 서문을 열었다.

“천안은 주변에 철골업체가 많아서 중방식과 대리점 중심의 영업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파트 재도장 영업은 거의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들어오면서 조금씩 시도하여 매출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2년 차의 이용진 주임이 서두를 꺼냈다. 아파트 재도장 영업은 대전 지점 조성수 지점장의 신시장 개척에 대한 자극으로 시작되었다. 대전 지점이 담당하는 지역의 아파트들은 노루페인트로 재도장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정도이지만 천안 영업소에서는 재도장을 맡아 할 만큼 규모가 있는 업체도 없을뿐더러 입찰이 있을 경우, 서울 업체가 썩슬이하는 경우가 많아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신시장 개척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입사 1~2년 차의 이들이 한 건, 두 건, 계약을 따내기 시작한 것이다.

“기존 거래선도 없고, 거래업체를 통하는 것도 아니라서 무작정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대리점营业을 다니다가 재도장이 필요해 보이는 아파트가 눈에 띄면 관리소에 가서 카탈로그와 명함을 드리고, 필요한 지식도 알려드렸지요.” 발로 뛰는 영업은 퇴근 시각 이후에도 이어졌다. 아파트 동대표 회의에서 프레젠테이션을 요청해 올 경우, 저녁 늦게라도 주저 없이, 대가 없이 나섰다. 그 결과는 호의로 돌아왔다. “결과적으로 다른 업체가 하게 되더라도, 애써준 것이 고맙다며 노루페인트를 써달라고 주문하시기도 하더군요.”며 박상은 주임은 미소를 띠다.

일 년 남짓한 노고의 투자는 6~7건의 재도장과 3억 여 원의 매출 발생으로 이어졌다. 다른 지점이나 본사의 재도장 견수와 매출액에 비하면 미미한 결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장조사에서 납품, 시공까지 맨몸으로 부딪혀 얻어낸 첫 결과이기에 더 값지고, 다음에 대한 기대가 있기에 훨씬 벅차다.





팬톤 프리미엄의 아파트

아파트가 밀집한 대표적 거주지, 천안시 불당동에 가면 유난히 눈에 띄는 아파트가 있다. 강조색인 레드와 블루, 그린이 콘크리트 건축물에 생기를 더하는 이 아파트는 천안 영업소의 작품이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공사 완료까지 총 6개월이 걸렸습니다. 관리소장님을 모시고 노루페인트 안양 본사까지 가서 색상을 고르기도 했지요.” 아파트 앞에 선 이용진 주임은 그때를 회상하며 웃음을 지었다. 이 아파트에는 고채도 색상을 뽑아내기 위해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가 쓰였다. 긴 시간 동안 고생했지만, 산뜻한 결과물이 나와 고객과 영업소 모두 만족한 작품이다. 천안 영업소의 이흥기 소장은 “이용진 주임의 당찬 면모와 박상은 주임의 꼼꼼함은 팀의 입장에서 서로를 생각하는 자세로 인해 훌륭한 조화를 이룹니다.”라고 평하며 아파트 재도장에서 천안 영업소가 충분히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아파트 재도장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끊임없이 접촉해야 하는 영업이더군요. 저희 영업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어서, 많은 분들께 신세를 졌습니다. 본사의 디자인팀, 생산팀, 김경미 대리님, 박호천 차장님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본사 직관팀에서의 노하우를 전수해 주신 조성수 대전지점장님, 김학근 과장님께서도 저희의 부족함을 채워 주셨고요.” 일일이 감사를 표한 후 그들은 천안에서도 ‘아파트 재도장’하면 (주)노루페인트를 떠올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들의 결의로 내일의 천안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이다.

휴가를 앞두고 어딜 가야 하나 하는 고민은 행복하기도, 힘들기도 하다. 일단 국내, 해외 중에서 골라야 하고, 국내라면 산, 바다, 계곡, 리조트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며 다음에는 펜션, 콘도 등 어디서 묵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면 이곳은 어떨까. 안면도에 위치한 학암포 해수욕장, 그리고 카라반이다.

둘에서 넷으로, 서해안의. 추억.

(주)노루오토코팅 김완기 과장 가족

학암포는
서해안 중에서도
고운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
그리고
얕은 해변으로
어린 유아가 있는
가족들의 나들이에
적합하다.

카라반보다 바다

태안반도에 위치한 학암포 해수욕장을 이번 여행지로 선택한 것은 카라반에서 묵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작은 공간 안에 침대와 테이블, 화장실과 조리시설이 오밀조밀 짜여 있는 카라반은 어린 아이들에게 신기한 체험이 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김완기 과장과 함께 도착한 여섯 살 민지, 네 살 성민이의 모습에서 그 기대는 여지없이 깨졌다. 두 아이는 카라반을 뒷전으로 한 채 바로 앞의 모래사장으로 뛰어나가 버렸기 때문이다. 하긴 이 좁은 공간에 저 활력들을 어찌 가둘 수 있을까 싶다. 그래도 조금 지나니 들락날락할 수 있을 정도로 낮은 카라반의 창문이 재미있는지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장난을 치는 개구쟁이들이다.

“2006년에 아내와 함께 바로 옆의 만리포 해수욕장을 온 적이 있었죠. 그때는 둘이었는데, 8년이 지난 지금 4명이 되어 오니 감회가 새롭네요.” 회상에 젖은 김완기 과장의 시선이 수평선을 지나 아내에게로 향한다. 카라반의 데크 아래에서 모래놀이 중인 아이들을 바라보는 아내, 이명희 씨도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조금 전까지 “아이들이 말을 안 들어서 어찌죠.”하며 걱정했던 그녀다. 바다에 들떠 촬영은 안중에도 없는 민지와 성민이가 마음에 걸렸던 탓이다. 그러나 파도와 모래를 두고 카메라에 집중할 아이가 과연 있을까? 선택한 여행지를 아이들이 마음껏 즐겨주는 데 고마울 따름이라고 하니 걱정하던 이명희 씨도 마음을 놓는 듯하다.



사실
민지와 성민은
이번 여행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왔을 것이다.
엄마와는
평일에 자주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을
보러 다니지만
아빠까지 동행한
 먼 거리 여행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사실 민지와 성민은 이번 여행을 누구보다도 기다려왔을 것이다. 엄마와는 평일에 자주 놀이동산이나 공원 등을 보러 다니지만 아빠까지 동행한 먼 거리 여행은 드물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는 어려서 긴 여행이 어려웠어요. 하지만 이제 여섯 살, 네 살이니 앞으로 자주 다녀야지요. 부족하지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많이 채워 주는 부모가 되고 싶어요.”라며 김완기 과장은 미안한 듯 말하지만, 이명희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참 훌륭한 아빠다.

“가정적이라 집에 오면 꼭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노력해요.” 대학생 시절이던 2000년에 만나서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는 항상 성실하고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 연인이자 남편, 아빠라고 한다. 이명희 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김완기 과장에게도 살짝 물었다. “우리 아내요? 아이들을 잘 배려하고 가족을 챙기고… 제게 가장 소중한, 믿음직한 사람입니다. 더 잘 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한 마음뿐이죠.” 그의 웃음 뒤로 추억은 밀려오고, 바닷물은 밀려가고 있었다.

조개보다 추억

학암포는 서해안 중에서도 고운 모래사장과 맑은 바다, 그리고 얇은 해변으로 어린 유아가 있는 가족들의 나들이에 적합하다. 마침 만월이가 가까워오는 터라 조개잡이에 더없이 좋은 때라고 카라반의 관리인이 말한 것을 김완기 과장에게 전달해 주었다. 특히나 밤의 썰물 때는 조개잡이 초보자에게 좋은 기회라고 한다. “과연 잡을 수 있을까요?”하고 반신반의하는 김완기 과장의 후일담이 궁금하여 여행이 끝난 후 연락해 보았다.

“조개는 잡지 못했지만 꽃게는 많이 잡았습니다. 밀물이 올라오는 줄도 모르고 잡는 데 열중하다가 못 돌아올 뻔했지 뭐니까. 하하, 즐겁게 잡고, 오는 길에 게들은 모두 놓아 주었습니다.” 수확이 없으면 어떡한가, 아이들의 웃음이 진정한 수확일 게다.

“이번 여행으로 과거 거래선 방문 당시 우연히 저녁식사를 함께 했던 임원분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성공을 위한 법칙 중엔 전체 10의 이익 중 나와 상대의 몫이 3씩이고 나머지 4는 공정한 경쟁으로 내 것이 될 수도, 상대 것이 될 수도 있다는 334 법칙이 있다는 것이었지요. 다시 한 번 그 법칙을 떠올리고 반성하는 여행이 되었습니다.” 가족과의 추억에 더하여 사회 생활에서의 성공 법칙까지 되새긴 김완기 과장, 이번 여행처럼 여름휴가 역시 알차게 보내길 기대해 본다.



학암포해수욕장

모래와 바위, 그리고 송림이 어우러진 학암포해수욕장에는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설치한 자연관찰로와 산책로가 있어 주변의 경관과 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작은 사막을 연상케 하는 신두리 해안사구, 안면도 주라기 공원 등 주변에도 볼거리가 많다.

모두캠핑 카라반

숙박 시설 중에서 바다와 가장 가깝다는 장점을 지닌 카라반. 2인 기준의 시설이라 비좁은 것이 단점이지만 성수기 때는 예약이 힘들 정도다. 카라반 데크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즐기는 BBQ는 낭만적이다.



열정이 준비한 선물

착착 정렬된 페인트 통, 올해의 색인 에메랄드 그린으로 칠한 벽, 상큼한 색상의 소파와 작은 나무 테이블, 빈티지스러운 바닥... 양양 두리상사에 들어서면 페인트와 함께 가게 전체를 지배하는 열정을 볼 수 있다. “어떤가요? 작은 공간이지만 페인트 매장하면 떠올리게 되는 창고 같은 분위기, 좋지 않은 냄새 등에 대한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눈에 들어오진 않겠지만 세세히 보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모습부터 예술가스러운 김재식 사장의 말마따나 매장은 아늑하고 깔끔하며 신선한 아이디어가 곳곳에서 빛났다. 게다가 실속도 짝 차 있어 오픈한 지 3년째인 현재, 양양의 시장 점유율에서 80%로 1위를 차지한다.

“고령화된 시장 속에서 김재식 사장님은 진취적인 젊음의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인구 3만인 이 지역에 조색기를 처음 들여 오시기도 했지요.” 강릉 영업소 유현일 대리의 말에 김재식 사장은 (주)노루페인트에 대한 인지도와 애향심을 들었다. “1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노루페인트에 대한 인지도가 좋았던 덕이지요. 조색기를 들여 놓은 것은 지역 주민을 위한 서비스 증대의 일환입니다. 주먹구구식의 수동 조색에서 벗어나 정확한 색채 구현을 하게 되면서 색상에 대해 조언과 상담을 구하시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유율도 높아졌고요.”



컬러풀 & 윈더풀 양양 두리상사

“앗, 저게 뭐지?” 6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강원도 양양 회룡초등학교에 등교하던 어린이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학교에는 빨, 주, 노, 초, 파, 남, 보라의 알록달록 무지개가 선명하게 입혀져 있었다. 아이들은 이내 강충거리며 신이 났고, 그들을 보는 선생님들의 입가에도 미소가 걸렸다. 이 행복한 마법을 건 이가 바로 양양 두리상사의 김재식 사장이다.



Rainbow
on the ground

양양에서 태어나 대부분의 생을 이곳에서 보낸 김재식 사장은 지역에 대한 애착이 크다. 회룡초등학교를 꾸민 것도 애향심의 발로였다. “꼭 한 번은 해 보고 싶었던 기부, 아니 선물이었습니다. 노루페인트에게도 감사할 뿐이죠. 이렇게 선명한 색채는 팬톤 프리미엄 페인트 아니면 나올 수 없었을 테니까요.”

김재식 사장은 이 짝짝 선물을 위해 많은 공을 들였다. 적당한 학교를 물색하고, 여러 차례 설득하여 허락을 구하고, 열흘 넘게 학교를 탐방하며 디자인을 구상하고, 4일치 작업량을 양양두

리 상사의 여섯 명 팀원과 매달려 주말인 이틀 안에 끝냈다. 인건비와 실비까지 천 만 원 가까이 든 공사였다. 완성되던 날, 반신반의하던 선생님들은 환한 색상에 엄지 손가락이 올라갔고, 교장 선생님은 무지개 원리를 떠올리며 반색했으며, 아무것도 모르고 등교한 아이들은 놀라 환호했다. 순수한 선물인데 이해타산 아래 접근한 것으로 받아들일까 염려하던 김재식 사장의 얼굴도 환해졌다. “아이들이 신나 한다는 소식에 팀원 모두와 굉장히 기뻐했죠. 원하던 바였으니까요.”



컬러 가득, 기대 가득

김재식 사장의 재능기부는 학교만이 아니라고 한다. (주)노루페인트의 강릉 사무실도 그의 손길로 칠해졌다. “항상 열정적이시고 노루페인트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제품 지식이 해박하여 개선할 점을 지적해 주시죠.” 유현일 대리뿐만 아니라 박광진 과장, 원주 지점장인 김성민 부장까지 김재식 사장에 대한 칭찬이 그칠질 않는다. “김재식 사장은 앞으로의 시장 트렌드가 ‘컬러’로 갈 것을 예측하고 실천하죠. 회사 입장에서 동기 부여가 되는, 고마운 인재입니다.”

정작 그는 너털웃음으로 쑥스러움을 털어내며 말한다. “박광진 과장님께서 노루페인트 대리점 하라고 권하셨거든요. 대리님께서 거드시고, 그 덕에 이만큼 된 거죠.” 겸손한 김재식 사장이기에 앞으로의 목표도 차근차근 다져가는 ‘내실’이다.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의 두리상사는 모의시험이에요. 앞으로 헤쳐나갈 모든 일의 시발점이지요. 여기서 나온 경험을 통해 우리 팀원들, 그리고 NOROO와 함께 더 확대해 갈 것입니다.” 컬러풀한 양양을 꿈꾸는 김재식 사장의 원더풀한 미래, 그에게 기대할 수 있어 참으로 기쁘다.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노루페인트&옥션 사랑의 트랜스포머 2탄 진행



NOROO DIY 리폼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중국 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페인트 공급



2014 신상품 개발 워크샵 실시

(주)노루페인트

신개념 컬러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 ‘컬러하우징’, GS홈쇼핑 론칭 방송

㈜노루페인트가 GS홈쇼핑과 1년여 동안 기획한 끝에 업계 최초로 신개념 컬러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인 ‘컬러하우징’을 론칭했다. 첫 방송은 GS홈쇼핑 채널에서 6월 23일(일) 밤 11시 40분부터 70분간 방영되었으며, 이를 통해 ㈜노루페인트는 새로운 컬러 인테리어 종합 서비스 시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컬러하우징은 디자인과 시공, 관리까지 컬러 인테리어 솔루션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노루페인트만의 프리미엄 시공 서비스 브랜드이다. 전문 컬러 컨설턴트와 시공 인력이 방문하여 공간의 용도, 크기, 벽지 상태 등을 진단한 후 컬러 테라피에 근거한 최적의 색채 계획을 제안하며, 시공 및 A/S까지 책임져 리모델링 수준의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을 창출해 주는 신개념 서비스이다.

이번 홈쇼핑을 통한 실내 인테리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보았을 때 컬러하우징은 향후 시장잠재력 및 성장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노루페인트&옥션 사랑의 트랜스포머 2탄 진행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6월 15일, ㈜노루페인트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옥션은 충남 논산에 위치한 계룡학사 보

육원에서 외벽을 깨끗하게 단장해 주는 사랑의 트랜스포머 행사를 진행하였다.

행사에는 ㈜노루페인트 외에도 희망브리지 전국재해 구호협회, 옥션의 자원봉사단체인 옥션나눔패밀리 회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하여 보육원의 낡은 건물을 다양한 컬러와 벽화로 새롭게 변화시켰다. 작년의 성우보육원에 이어 사랑의 트랜스포머 2차 사회공헌 프로젝트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고객과 함께 진정성 있는 나눔을 실천하고자 하는 ㈜노루페인트와 옥션의 의지를 담고 있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주제의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즐겁게 봉사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NOROO DIY 리폼 페스티벌 이벤트 실시

지난 5월, ㈜노루페인트는 ㈜노루페인트 노동조합 주관 아래 NOROO 임직원을 대상으로 〈2013 NOROO DIY 리폼 페스티벌〉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이번 이벤트는 전국 300여 개 대형마트(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등)에서 자사 제품 중 원하는 아이템을 구입하고 이를 이용해 오래되거나 버려지는 집기를 새로운 인테리어 소품으로 탄생시키는 행사로서, 셀프 페인팅의 리폼을 직접 경험함과 동시에 제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많은 NOROO 임직원이 참여한 이번 행사의 수상자로는 1등인 ㈜노루페인트 마산지점 김호준 주임 외 총 7명을 선정하여 백화점 상품권을 수여했으며 참여자 전원에게는 팬톤 머그컵 등의 경품을 지급하였다.

중국 서안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 페인트 공급

삼성전자가 중국 서안 시에 건립하는 반도체 공장에 ㈜노루페인트 제품으로 스펙하여 공급하였다. 중국 서부에 위치한 서안은 중국의 새로운 지도자 시진핑의 고향으로 현재 글로벌 IT 기업들이 생산 거점으로 삼아 진출해 있으며, 내수 고객 또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신성장 지역이다. 또한 향후 10년간 충청, 청두와 함께 중국의 성장을 이끌 지역으로 꼽히고 있기도 하다. 삼성전자는 서안 시와 중국 정부의 승인 절차를 거쳐 2012년에 반도체 생산라인 건설에 착수했으며 2013년부터는 최신 10나노급 낸드 플래시 양산을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공사는 삼성물산에서 설계 및 시공하는 것으로서, 기존의 국내 반도체 현장에 스펙되어 있던 유성 에폭시 코팅 부분을 ㈜노루페인트 신제품 코팅제인 크린폭시(W) 도료가 대체하도록 결정되었으며, 에폭시라이닝 부분 및 층간 방수 부분에 무기질 도료로 스펙된 것은 ㈜노루페인트의 신제품인 라이닝 도료로 대체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다. 이 외에도 격자보, 기둥, 바닥, 천장 부분에 수성 코팅 등을 단계별로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중국 내의 도장업체 두 곳(우진, 보래)에 도장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노루페인트, 2014 신상품 개발 워크샵 실시

㈜노루페인트는 지난 5월 24일 송도 테크노파크 IT센터에서 〈2014 신상품 개발 워크샵〉을 실시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노루페인트의 연구, 기술, 영업의 임원 및 팀

장 등 6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2014년도 신상품 개발을 위해 기술경영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연구·기술 부문의 TRM(Technical Roadmap), PRM(Product Roadmap)을 기반으로 하여 시장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 및 영업 전략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토론은 건축, 자보, 공업의 주요 3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됨으로써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의견이 오갈 수 있었다. 한편 이날 격려자 참석한 안경수 회장은 글로벌 기업의 대표 상품인 코카콜라, 박카스, 활명수 사례를 통하여 NOROO의 선진 상품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노루페인트,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진행

㈜노루페인트는 지난 5월 11일 안양시 소재 ‘평화의 집’에서 페인트 칠하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평화의 집은 NOROO와 23년째 함께해 오고 있는 보육원으로, 올 봄에는 ㈜노루페인트 안양공장 직원들이 평화의 집을 찾아 오래된 공원 벤치, 울타리, 내부 시설 등을 페인팅, 보수하며 봉사하였다. 또한 한국 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진행하는 ‘사회공헌 글로벌 리더’를 대상으로 도장 교육도 실시하였는데, 소외된 나라를 찾아 사회공헌을 하는 리더들에게 페인트 도장에 대한 이론 교육과 현장 실습을 실시해 전문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었다.

NOROO는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 기업 이익의 사회 환원이라는 개념을 넘어 기업과 사회가 모두 행복해지는 상생으로 여기며, 앞으로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News Briefing

• 뉴스 브리핑



㈜노루페인트, 봉사활동 및 사회공헌 활동 진행



칼라메이트㈜,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 일산점 오픈

칼라메이트(주)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 일산점 오픈

칼라메이트(주)의 컬러 하우징 브랜드인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 일산점이 2013년 7월 1일 오픈하였다.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Colormate Design House, C.M.D.H)는 컬러 전문기업인 팬톤 사의 고채도 컬러와 ㈜노루페인트의 기술을 접목하여 아파트, 상업 공간, 사무 공간 등에 개성 있는 실내 디자인을 연출하는 컬러 서비스 전문 브랜드이다.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는 고객의 심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최적화된 컬러를 제안하는 컬러 컨설팅을 실행하며 보다 다양한 페인트 컬러로 공간을 연출한다. 특히 기존의 인테리어 시공에 비해 짧은 기간 안에 저렴한 비용으로 실내의 분위기를 변화시키는 장점과 함께 지역에 밀착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 일산점은 매장 내 고객 체험 공간을 배치하여 고객과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컬러 컨설팅 외에도 컬러 테라피, DIY용 페인트, 인테리어 소품, 홈케어 제품 등을 전시 판매할 예정이다. 향후 칼라메이트 디자인하우스는 2013년 8월의 을지로점(본사), 2014년의 분당점 오픈과 2015년의 가맹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국내 최고의 컬러 서비스 전문 브랜드로 성장해 갈 계획이다.

(주)노루로지넷

〈제5회 국제화학장치 산업전〉에 GHS 관련 물품 출품

㈜노루로지넷은 지난해 〈제4회 국제화학장치 산업전〉에 GHS 관련 상품을 출품한 데 이어, 올해 2013년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열린 〈제5회 국제화학장치 산업전〉에도 GHS라벨프린터 XC6, 라벨응용프린터(ZEBRA 220XI4, SLT-T400) 등을 출품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산업전에는 다우케미칼, KCC, LG생활건강 등 지난해에 선보였던 GHS라벨프린터 XC6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실무진들이 참관하여 본 제품이 GHS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호평하기도 하였다. GHS라벨프린터 XC6는 1도 인쇄만 가능하였던 기존의 바코드 라벨 프린터와 달리 2도 인쇄가 가능하여 GHS의 적색 테두리까지 구현, 산업 현장의 효율성을 높여 준다. 이에 GHS라벨프린터 XC6는 NOROO 그룹을 포함하여 많은 화학 업체에 납품되었고 구입 문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또한 SLT-T400의 경우 소형 라벨 제작에 적합하여 소규모 화학업체 및 대리점 등에 판매되었다.

GHS는 화학 물질의 분류와 표시 등에 대한 세계 조화 시스템(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혼합물질에도 적용되어 화학 제품을 담은 용기에 원료



㈜노루로지넷, 〈제5회 국제화학장치 산업전〉에 GHS 관련 물품 출품

성분에 따른 각종 주의사항을 고지해야 한다. 작년부터 이에 대비한 마케팅을 선두적으로 펼치고 있는 ㈜노루로지넷의 관련 물품들은 화학업체 및 타 업종에서도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이번 행사는 ㈜노루로지넷이 GHS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 회사임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주)아이피케이

강오수 대표이사, 제14회 부산문화대상 해양 부문 수상

지난 4월 15일, 부산 벡스코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제14회 부산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다. 이날 강오수 사장은 국내 조선·해양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해양 부문에서 수상하였다. 부산문화대상은 부산 MBC 방송이 BS 금용자주와 함께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제정한 것으로, 매년 해양 부문, 사회공헌 부문, 봉사 부문, 경영 부문 및 문화예술 부문 등 5개의 분야에서 국가발전에 헌신해 온 부산의 숨어 있는 일꾼들을 발굴해 그들의 업적을 널리 알려 사회의 귀중한 본보기로 삼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부산 MBC에서는 (주)아이피케이 본사를 방문, 취재하여 4월 12일에 〈와이드 쇼, 행복한 금요일〉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방영하였고, 4월 15일에



㈜아이피케이 강오수 대표이사, 제14회 부산문화대상 해양 부문 수상

는 시상식을 부산 지역에 생방송으로 중계하였다. 강오수 사장은 “오늘날의 아이피케이가 있기까지 신뢰하고 성원해 준 고객들, 회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던 400여 명의 임직원과 믿음과 배려로 묵묵히 지원해 준 가족들의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수상 소감을 밝히며 “이번 수상을 앞으로 더 잘하라는 지역사회의 당부로 생각하고 임직원들과 함께 존경받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더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화학적 자차? 물리적 자차?

자외선 차단제(이하 자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외선을 반사시키는 물리적 자차(티타늄디옥사이드, 징크옥사이드 함유), 그리고 자외선을 흡수해 산란시키는 화학적 자차(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등 함유)이죠. 물리적 자차는 피부 위에 선풍을 입히는 원리이니만큼 바를 때 밀리기도 하고 얼굴이 하얗게 되는 백탁 현상도 강합니다. 지을 때도 클렌징 오일 등으로 꼼꼼히 지워줘야 하고요. 화학적 자차는 잘 발라지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지만 피부 자극이 물리적 자차보다 높고, 땀과 물 등에 잘 씻겨지죠. 피부 건강을 생각한다면 물리적 자차가 낫지만, 꼼꼼히 바르고 지울 수 있는 바지런함이 부족하다면 화학적 자차도 괜찮습니다.

SPF(Sun Protection Factor)

선크림에는 SPF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햇볕 아래 노출된 피부가 타지 않게 보호해 주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보통 1SPF는 15분~20분의 지속력을 가지니 45SPF의 경우 11시간 정도 피부를 보호해 주는 셈입니다. 하지만 SPF의 숫자가 높은 것을 하루 한 번 바르는 것보다는 낮은 지속력이라도 수시로 덧바르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화학물질의 농도도 높아져 피부의 부담이 커지니 덧바를 수 있는 시간을 감안해 SPF 수치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또한, 얼굴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바를 때의 양은 손가락의 한 마디 반에서 두 마디 정도라고 하니, 생각보다 듬뿍 발라줘야 제대로 차단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외출하기 30분 전에 발라줘야 하므로 아침에 일어나 스킨 로션 후 자외선 차단제까지 바르는 것을 습관화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름 낀 날이라도 빠뜨리지 마세요.

구석구석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는 주름과 점, 기미와 같은 피부 노화의 징후도 지연시킵니다. 보통은 얼굴에만 바르지만 노화는 목과 팔, 손에서도 일어나죠. 특히 햇살이 내리 쏘는 뒷덜미와 쇄골에는 얼굴 못지 않은 관리가 필요합니다. 팔과 손, 여성분들은 샌들 속 발등까지 꼼꼼하게 발라 주세요. 어차피 한 번 개봉한 자외선 차단제는 1년 안에 써야 하니 아낌없이 쓰시는 게 좋습니다. 덧바르는 것이 힘들다면 스프레이 제품이나 스틱형 제품을 함께 구비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선크림, 이렇게 바르세요

인체에 비타민D를 만들어 주는 고마운 햇살이지만 그 속의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촉진하고 심하면 피부암까지 일으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피부를 가리는 게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중동 지방 여인들의 차도르처럼 온몸을 숨기는 것이지만 후덥지근한 한국의 여름에는 불가능한 대책이니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는 게 최선입니다.

Thank you NOROO

예능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나 보고 싶은 이,
고마운 분들께 갑작스레
영상 편지를 띄우곤 하죠.
감미로운 음악을 깔고,
아름다운 프레임에 넣어서 말입니다.
대화 중에 그냥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말해도 될 텐데 굳이 분위기를 잡아주는
이유는, 그럼으로써 마음을 더욱
확실히 전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NOROO 곳곳에 비치한 감사 카드도
그러한 프레임과 같습니다.
매일의 일상 속에서 동료나 선임, 후배에게
흔히 하게 되는 '고마워', '나중에 밥 한 번 먹자'
'신세 잊지 않을게'라는 말도 카드에 적으면
더 구체적인 감사와 속정 깊은 이야기가 되지요.

주저 말고 오늘, 감사 카드 한 장을
꺼내어 주세요. 오랜만의 손 글씨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 주세요.

